

# 경북 연수단, 네덜란드 정부와 스마트 농업 협력 '맞손'

네덜란드 농업시스템 도입 요청  
스마트 농업기술 경북 현지화  
경북대-세계원예센터 등과 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북농업 대전환 위원 등 네덜란드 연수단은 현지 시간 19일 12시에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차관(Guido Landheer)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철우 도지사는 방문취지와 경북 농정 대전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스마트 원예, 수출, 농식품, 종자산업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미래 농업분야에서 도와 네덜란드가 긴밀히 협력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차관(Guido Landheer)은 경북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차관과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의 강점인 IT분야를 활용한 첨단농업으로의 혁신계획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경북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품화·기후변화·국제정세에 따른 농식품 시장 불안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어 연수단은 이날 오후 4시에 세

계원예센터(WHC)를 방문해 Puck van Hostenen CEO와 '경상북도-경북대학교-세계원예센터-린즈교육그룹간 상호업무협약서(MOU)'를 교환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원예센터는 네덜란드 주요 스마트 팜 단지인 남홀란드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3월에 개소한 후 스마트 농업 관련 비즈니스·교육·연

구 등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4.3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올해 1월 비대면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한국 WHC의 설립과 운영, 경북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WHC의 협력, 시설원예기술 교육 및 전문요원양성, 스마트 농업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한 인적교류 등이 담겨 있다. 이날 만남 자리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WHC CEO는 업무협약서를 상호 교환하고 협약내용 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네덜란드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교류, 연구과제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의 목적은 스마트 농업기술을 경북에 맞게 현지화하고, 인재육성을 통해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강영석 상주시장

### 현장 찾아 시민과 '소통간담회'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8월 16일 사별국면을 시작으로 9월 15일 남원동까지 관내 24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8기 출범, 읍면동 방문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시정추진 방향과 비전을 강영석 시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각 계각층 주민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큰 수확이었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 담양군,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담양군이 20일 군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 실현을 위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처음 시책을 계획한 만큼 군수공약사항 실현 및 정부 12대 국정과제,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연계 시책 발굴 중심으로 심도 있는 보고가 이뤄졌다.

군은 군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통합의 포용적인 공감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소별 핵심 정책방향 설정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 MZ세대 공무원과 '징검다리 토크'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9일 순천만 나트림터에서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징검다리 토크' 첫 번째 시간을 가졌다.

35세 이하 공무원 중에 무작위로 선별된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징검다리 토크'는 '일류순천의 힘은 공무원으로부터'라는 모토 아래, 도시의 실행력은 공무원에게 있으며, 이들이 곧 미래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울산시

### 1차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회의

울산시가 20일 '제1차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안호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울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울산본부,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형 경제 고용위기 대응시스템 운영계획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세부 추진계획 ▲지역경제 재도약 혁신과제 ▲2022년 울산경제 고용 산업 진단 등의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안호대 경제부시장은 "지역경제 혁신추진단 활동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병호 기자

## 예산 1894억 확보

# 재해 안전도시 부산 만든다

침수 위험지 5곳, 붕괴위험지 2곳  
내년 실시설계... 2024년 사업 착수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재해 예방 신규사업'을 통해 1,894억 원 규모(국비 947억)의 재해예방사업을 내년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신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해 그동안 시민들의 우려를 샀던 ▲동래구 서원·안락지구(497억) ▲남구 문현지구(473억) ▲수영구 망미2지구(385억) ▲사하구 다대지구(232억) ▲금정구 금사1지구(120억) 등 침수 위험지 5곳과 ▲영도구 영선2-1지구(125억) ▲영도구 영선2-2지구(62억) 등 붕괴 위험지 2곳으로 총 7곳이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총사업비 2,785억)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247억)도 확보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차질없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사업지는 ▲사상구 삼락지구(침수 위험지) ▲사상구 학장·감전2지구(침수 위험지) ▲해운대구 반여1지구(침수 위험지) ▲수영구 민락1지구(침수 위험지) ▲북구 덕천교차로(침수 위험지) ▲북구 대천천(취약 방재) ▲동구 범일2지구(침수 위험지) ▲동래구 수민지구(침수 위험지) ▲영도구 영선2지구(붕괴 위험지) ▲서구 압남2지구(붕괴 위험지) ▲사하구 승학2지구(붕괴 위험지) ▲사하구 승학3지구(붕괴 위험지) 등 총 12곳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액 1000억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도

10% 할인혜택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무안군의 무안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86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이 예상됐으나 10% 특별할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름휴가철 등으로 월 90억 원 이상 판매가 늘어남에 이어 추석명절 동안에

도 55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발행액이 1066억에 달하면서 남은 한도가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220억 원을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무안군은 도내 지자체 군 단위 자치단체 중 2번째로 많은 발행·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10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6~10% 할인 판매를 시행해왔으며 지류상품권 가맹점 3,708개소,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3,123개소를 등록하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지리산 터널.

/산청군

## 산청군, '지리산 터널' 오늘 개통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개통식

산청군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지리산 터널(밤머리재 터널)이 21일 개통한다.

산청군은 21일 오후 2시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개통식을 열고 이날 오후 3시부터 본격 운영한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공사는 모두 10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총 6km 구간으로 이 가운데 지리산 터널구간은 3km다.

2016년 4월 착공, 6년 5개월여 만인 2022년 9월 21일 개통을 하게 됐다.

산청군 산청읍에서 삼장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인 국도 59호선 삼장~산청간 국도인 밤머리재는 왕복 2차로의 산악도로였다.

터널 개통으로 기존 산청읍~시천면 거리가 약 25.6km에서 18.6km로 단축됐다. 설계속도(시속 60km)로 주행하면 산청읍에서 지리산 입구까지 약 15분 정도면 당도할 수 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퇴직자 재취업 '채용박람회' 개최

자동차 관련 기업 등 26개사 참여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산업의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희망 잡고 일 잡(job)고(go)' 채용박람회를 김해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2일 김해 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일자리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행사로 경남도, 김해시,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해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

체에게는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고용위기산업(자동차, 기계, 항공) 관련 기업인 흥일기업㈜ 등 26개 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기술직, 생산품질관리직, 금속공학기술자 및 연구직, 해외영업직 등 190여 명을 채용한다.

채용박람회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위기산업 재취업 지원 관련 내용은 김해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경남=장병호 기자